

6 기획 - 장애학생 어학성적

장애학생 어학성적 인증 개선 필요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대학영어 면제, 졸업능력인증제도, 교환학생 등 어학성적 인증이 필요한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청각장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과 학교, 학교와 학교 간 소통 오류는 오히려 청각장애 학생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우리신문은 청각장애 학생의 목소리를 통해 학내 장애학생이 처한 상황을 되짚어봤다.

레벨테스트 및 이수 면제
개선 의지 보이냐
일부 여전히 제자리걸음

지난 3월 우리신문은 청각장애 학생의 대학영어 레벨테스트 및 이수 면제에 관한 어려움을 보도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국제캠퍼스(국제캠) 자유 게시판에 청각장애 학생 한명이 대학영어 레벨테스트 청해 시험 응시와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했고, 이에 관한 해당 교과 교수의 대응과 대학영어 면제기준이 논란이 됐다. 이후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담당 교수와 면담을 통해 대학영어 레벨 확정 등의 대안을 마련했으며 “추후 별도 기준이나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대학영어 장애학생배려필요/대학주보 온라인 (2022.03.13.))

그러나 별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번 학기에도 직전 학기와 같이 담당 교수와 면담 등을 통해 대학영어 레벨을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올해 시행된 레벨테스트는 영국문화원의 시스템 사용을 허가받은 공통 적용 사항으로,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웠다”면서도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내부적인 레벨테스트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사항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학과와 달리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학영어 면제 기준안은 마련됐다. 대학영어 레벨테스트를 치른 후 수업을 수강했던 청각장애 학생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국제캠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청각장애 학생(1급)이 제출하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에 대해 ▲듣기평가 점수를 제외한 읽기평가 점수만 인정하고 ▲이수 면제



서울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 (사진1), 국제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 (사진2)

(사진1=박소은 기자), (사진2=박서현 기자)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한 경우 이수 면제를 인정할 예정이다.

지난 학기에 비해 일부 개선은 있었으나, 관련 부서 간 소통은 더디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이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다. 더욱이 이번 학기 대학영어 기준안의 변동 사항은 국제캠 후마니타스칼리지의 회의 결과로, 우리신문이 취재할 당시 서울캠 측은 관련 정보를 공유받지 않았다가 취재 이후 양캠퍼스(양캠) 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후 양캠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인터뷰를 통해 “서울캠도 별도 면제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위원회 등의 내부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졸업능력인증제 채택 중인 일부 단과대학 장애학생 고려하지 않아

졸업능력인증제에서도 장애학생들의 애로사항은 여전하다. 졸업능력인증제의 여부와 기준은 단과대학별로 상이하며, 현재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국제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이 졸업능력인증제를 실시 중이다. 그러나 졸업능력인증제를 실시 중인 단과대학 중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 기준안을 마련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국제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졸업능력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단과대학의 청각장애 학생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학생 요청을 접수한 후 해당 단과대학에 문의했지만 추후 기

준 변동과 관련된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학뿐 아니라 기관에서도 장애 고려한 어학성적 기준 마련

2019년에는 고려대학교(고려대)에서 청각장애 학생의 졸업능력인증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해당 학생은 페이스북 페이지 ‘고려대학교 대나무숲’을 통해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 어학성적 졸업요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고려대 학사팀은 장애학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어학성적 졸업요건을 면제하는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했다.

이밖에도 여러 대학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 어학성적 기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영어 및 정보인증제는 중증청각장애인(TOEIC시험 장애인

응시규정)에 한해 독해 부분만 평가하며 그 기준을 400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도 어학졸업 인증에 관해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 한 자 ▲중증장애인 등을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학뿐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별도 어학성적 기준을 두고 있다. 법무부 사법 시험은 청각 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듣기 부분을 제외한 후 합격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5급 공채의 경우에는 2021년을 기준으로 어학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을 완화해 더욱 많은 청각장애인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어학성적 인증 제도와 더불어 소통 미흡도 개선할 사항

우리학교도 점차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소통 차원에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초, 국제교류처는 2022학년도 2학기 파견 교환학생 지원을 준비 중인 청각장애 학생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어학성적 기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제교류처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우리신문의 취재 결과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관련 변동 사항에 대해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언급된 대학영어 면제의 경우도 ‘이수 면제 기준의 별도 적용이 필요한 경우(청각장애 학생 등)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별도 문의’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청각장애 학생 A 씨는 “(교환학생과 대학영어 면제의) 구체적인 어학성적 기준이 공지되지 않아 행정실에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직접 문의하더라도 원하는 답변이 돌아오지 않거나 따로 시간을 내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관련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환학생의 경우 장애인의 지원 사항 등에 대한 공지가 없어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국제처는 “(우리신문의 취재 이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청각장애 학생의 교환학생) 산출 기준에 대해 전달했으며 별도 문의가 있을 시 대상자에게 따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학영어 공지 건에 대해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대학영어) 이수 면제에 대해 일부 학생들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면 행정실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전체 공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